

과 지닌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시설평가에서 최 우수 A등급으로 인정받았다.

이른 어르신들의 섬김 정신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의 복지를 펼치고 있는 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 모든 세대와 가족이 어우러지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결과이다.

따마린 겨울비와 지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복지관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의 온기와 열기로 가득했다.

소위 복새통을 이루었던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며칠 안된 터라 더욱 분주해 보였고 평소에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하루 평균 1,600여명이 이용자가 찾는다고 한다.

대은 은퇴 이후 방황하는 신 노년층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양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담아내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복지관의 세부사업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맞춤형 정서서비스 '해피리본'은 복지부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어 본인부담금 일반원이면 심리검사 및 개별상담과 집단 치유프로그램과 문화여가체험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참여 희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군포시니어아카데미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취미와 여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여 세대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에까지 이

한편 복지관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속출하면서 욕구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뉴실버세대의 올바른 노후설계 고심해왔으며, 금년부터는 은퇴 노후설계 강좌를 비롯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 지속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외 복지관에서는 기초상담에서 자살예방의 전문상담에 이르는 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다양한 재가복지사업과 서비스, 연구조사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주해 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었다. 해당 법인인 기아대책의 후원과 봉사활동 운영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지관에서도 학교·어린이집 등의 저금통사업, 지역사회 CMS후원, 거리캠페인



과 테마사업 등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원봉사활동 운영 면에 있어서는 교육에서 봉사활동 실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사업에서도 우수인증센터(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로 지정 받았다.

이와 같이 복지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

을 수 있었던 것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중심이 되는 선도적인 노인복지 실천으로 복지관의 슬로건 '우리의 꿈은 어르신의 행복입니다.'답게 진정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면기자(ggcsv@hanmail.net)

# 여성·청소년·가족정책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된다. 금년에 신규로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가까이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년도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551개 과정으로 전년도보다 119개 과정을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12년도에 직업교육훈련 심화과정을 시범운영하였으나, '1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20개 과정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된다.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진다.

##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된다. 취업제한 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그 대상이 확대된다.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된다.

## 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람'(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이 현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과 교육시설의 장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교과교육학원의 장까지 확대된다.

## 5.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 6.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2012년 10월 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 의료비(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에게로 확대되었다.

## 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2013

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된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 확대

피해자 명예회복·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을 신규로 실시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확대 추진된다. 이는 피해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치료를 위해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9.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단체 종사자인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 10. 청소년활동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활동 분야별 개별적인 시스템이 지난 15일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1차로 지난 15일부터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청소년체험활동지원제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국제교류시스템이 오픈되고, 2차로 2월 26일부터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이 오픈된다. 새로 시작되는 청소년활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한 개의 아이디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기

록, 청소년활동정보, 시설/단체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11. 국립영덕·김제청소년수련시설 개원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위한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인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7월에 개원 예정이다.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는 해양자원탐사코스, 조선·항해코스, 해양환경연구코스, 해양안전훈련코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는 농업생명과학코스, 농업과 학기술코스, 농업생태환경코스, 야외활동코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 12.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3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 영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만9세~만18세)이다. 동 센터는 입교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입교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입교비용은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및 1일 이용 별도이며,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이다. 입교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리 등 청소년관련기관에 신청 후 입소판정을 통해 결정된다.

## 1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체계 구축 강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설치한다. 고위험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치유학교(인터넷RESCUE스쿨)는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중독 치유 효과로 매년 운영을 확대해 왔으나, 학계 방학에 집중 운영되는 특성상 연중 수시 발생하는 중독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시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폐교 등을 활용하여 상설 인터넷치유학교의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응을 체계화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상담 현장, 치료협력병원 등에

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14.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시민 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유해환경을 감시·고발하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자율정화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광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감시단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활동 추진이 가능하고, 결속력과 유대감이 강화되어 광역단위의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 1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2013년 3월부터 종전 연간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까지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도 '12년 30,000가구에서 '13년 46,800가구로 확대(56% 증가) 지원된다.

## 16.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금년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지원 연額は 연차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단가는 2005년부터 8년간 월 5만원으로 동결 지원되어, 그간의 양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한부모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2013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17.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일명 '코디네이터')를 배치(50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와 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한 상담·정보제공·교육기관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인·s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이중언어 교육 확대를 통해 다문화갑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200 → 210개소)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